

體質과 辨證論治와의 關係¹⁾

安圭錫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I. 緒 論

辨證이란 證候를 鑑別하는 것으로, 診斷과 治療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 선행과정이다. 그러므로 辨證이란 疾病의 本質을 명확하게 구명하는 과정으로 臟腑, 經絡, 病因, 病機 등의 기초이론에 근거하여 綜合分析하므로 個體의 體質과 密接한 관계가 있다¹⁾.

『靈樞』, 『通天篇』에서는 五態人體質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그 이후 그것을 活用한 臨床研究가 없었다.

朝鮮末期의 李濟馬³⁾(1836-1900)는 『傷寒論』에 기초하여 새로운 醫學體系인 四象體質醫學을 創始하였다. 그 體系는 哲學的 思索으로부터 演繹된 독특한 四元構造로 說明되어 있다.

四象體質醫學을 專攻하는 側의 一部 學者들은 韓醫學은 證候醫學이며 四象醫學은 體質醫學으로서, 이 둘은 體系가 다르므로 比較할 수 없다고 단정짓고 있다. 그리고 『東醫壽世保元』³⁾의 辨證論에서도 “『靈樞經』中에 太少陰陽五行人論이 있기는 하나

이는 大略 外形만을 말하였을 뿐이고, 臟腑의 이치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여 四象人의 臟腑生理가 『內經』에서 비롯되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李濟馬의 四象哲學은 우리 나라 고유의 儒學的 風土에서 自生된 改新儒學으로 모든 儒의 현상을 事心身物로 요약하여 說明하는 哲學理論이며, 그 배경은 儒學의 好善惡惡과 知人正己에서 그 목적을 찾을 수 있으므로 治心, 治病醫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⁴⁾.

한편, 玄谷先生의 『四象體質醫學論』⁵⁾에서는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 「臟腑論」, 「廣濟說」 등은 觀念論的이라고 批判하였다.

이에 著者는 辨證體系의 嚆矢가 되는 『傷寒論』의 病證과 溫病등을 四象體質辨證과 比較하여 相互關係를 알아보고, 아울러 四象體質醫學에서의 臟腑概念을 現存醫學的 側面에서 觀察한바를 報告하고자 한다.

II. 證과 四象體質과의 關聯性

一. 六經病證과 四象體質^{1,3,5,6)}

『傷寒論』에서 四象體質病證과 관련이 깊은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제3회 월례연구모임에 발표된 내용임 (1992. 11. 26)

1. 少陰人病證

1) 太陽病證中에서의 少陰人病證

(1) 太陽中風表虛證

① 桂枝湯證

② 兼證: 桂枝加厚朴杏子湯、桂枝加附子湯、桂枝加葛根湯、桂枝去芍藥湯、桂枝去芍藥加附子湯、桂枝加芍藥生薑人參新加湯

(2) 虛寒證

① 心陽虛證: 桂枝甘草湯、桂枝甘草龍骨牡蠣湯、桂枝加桂湯、桂枝去芍藥加蜀漆牡蠣救逆湯

② 陽虛兼水氣證: 苓桂甘棗湯、苓桂朮甘湯、桂枝去桂加茯苓白朮湯

③ 脾虛證: 厚朴生姜半夏甘草人參湯、小建中湯、桂枝人參湯

④ 腎陽虛證: 乾姜附子湯、茯苓四逆湯、眞武湯

⑤ 陰陽兩虛證(陽損及陰): 甘草乾姜湯、芍藥甘草湯、芍藥甘草附子湯、炙甘草湯

(3) 痞證

寒熱錯雜痞證: 半夏瀉心湯、生姜瀉心湯、甘草瀉心湯

(4) 蓄血證: 桃核承氣湯、抵當湯、抵當丸證中 一部

2) 陽明病證中에서의 少陰人病證

(1) 陽明中寒證

(2) 陽明府實證: 麻仁丸、大·小承氣湯證中 一部

3) 三陰病證中에서의 少陰人病證

(1) 太陰病證(脾胃虛寒證): 全部

(2) 少陰病證(全身虛寒證): 少陰病熱化證、咽痛證을 제외한 전부

(3) 厥陰病證(寒熱錯雜證): 厥陰病熱厥證을 제외한 전부

2. 太陰人病證

1) 太陽病中 太陰人病證

(1) 太陽傷寒表實證

① 麻黃湯證

② 兼證: 葛根湯、葛根加半夏湯、葛根芩連湯、麻杏甘石湯、大青龍湯一部、黃芩湯

2) 陽明病證中에서의 太陰人病證

(1) 陽明府實證: 調胃承氣湯、大·小承氣湯一部

3) 厥陰病證中에서의 太陰人病證

(1) 上熱下寒證: 麻黃升麻湯

3. 少陽人病證

1) 太陽病證中에서의 少陽人病證

(1) 太陽溫病證

(2) 太陽表實兼內熱證: 大青龍湯

(3) 結胸證: 大·小陷胸湯

2) 陽明證中에서의 少陽人病證

(1) 陽明經熱證: 白虎湯

3) 少陽證中에서의 少陽人病證

少陽證 全部

4) 少陰病中에서의 少陽人病證

(1) 少陰病熱化證: 黃連阿膠湯、猪苓湯

4. 玄谷先生の 病證 分類 概要⁵⁾

四象體質에 적합한 表證、裏證、下證、胃證、利證 및 黃證을 分類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표 1).

5. 李濟馬先生の 病證 分類 概要³⁾

『東醫壽世保元』에서 六經病證 가운데 四象體質과 관련된 부분을 개술한 것은 다음과 같다(표 2).

二. 溫熱病證과 四象體質⁷⁾

『溫病條辨』의 處方中에서 四象體質病證과 관련이 깊은 것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少陽人病證

體質 病證	少陰人 體質	少陽人 體質	太陰人 體質
表 證	桂枝湯證(表虛)	大青龍湯證 小柴胡湯證(表熱)	麻黃湯證(表實)
裡 證	附子劑證 吳茱萸劑證(裡寒)	石膏劑證(裡熱)	調胃承氣湯證 (排泄障礙證)
下 證	大小承氣湯證 下瘀劑證	石膏劑證 逐水劑證	調胃承氣湯證 (排泄障礙證)
胃 證	生薑瀉心湯證 (消化障礙證)	黃連湯證 (胃熱證)	調胃承氣湯證 (排泄障礙證)
利 證	小青龍湯證(寒飲)	利水劑證(水道不利)	瓜蒂散證(隔滯)
黃 證	茵陳蒿湯證(濕)	梔子柏皮湯證(熱)	麻黃連翹赤小豆湯證 (留滯)

(丑 1) 病證分類對照表

太 陽 病	少陰人病證多 太陰人病證 少陽人病證
陽 明 病	少陰人病證居多 少陽人病證 太陰人病證
少 陽 病	少陽人病證
太 陰 病	少陰人病證
少 陰 病	
厥 陰 病	

(丑 2)

1) 上焦篇

(1) 風溫、溫熱、溫疫、溫毒、冬溫: 銀翹散、桑菊飲、白虎湯、犀角地黄湯、梔子豉湯、清營湯、化斑湯、紫雪丹

(2) 暑溫: 白虎湯、清暑益氣湯、清洛飲、清營湯

(3) 伏暑: 銀翹散、白虎湯

(4) 溫瘧: 加減銀翹散

2) 中焦篇

(1) 風溫、溫熱、溫疫、溫毒、冬溫: 加味竹葉石膏湯、增液湯、白虎湯

(2) 暑溫、伏暑: 三石湯

(3) 濕溫: 黃芩滑石湯、活人敗毒散、加減小柴胡湯、加減黃連阿膠湯

(4) 秋燥: 玉女煎

3) 下焦篇

(1) 風溫、溫熱、溫疫、溫毒、冬溫: 黃連阿膠湯、小定風珠、犀角地黄湯

(2) 暑溫、伏暑: 控涎丹

(3) 濕溫: 宣清導濁湯、加減理陰煎

2. 太陰人病證

1) 上焦篇

(1) 風溫、溫熱、溫疫、溫毒、冬溫: 清營湯、牛黃丸、局方至寶丹

(2) 溫瘧: 杏仁湯

(3) 秋燥: 桑杏湯、沙參麥冬湯、清燥救肺湯

3. 少陰人病證

1) 中焦篇

(1) 寒濕: 茵陳四逆湯、苓薑朮附湯、理中湯、四逆湯

(2) 濕溫: 人參瀉心湯、加減正氣散

2) 下焦篇

(1) 寒濕: 朮附薑苓湯

(2) 濕溫: 溫脾湯、扶陽湯

三. 四象臟腑와 五行臟腑와의 比較⁶⁾

四象體質醫學에서의 肝、脾、肺、腎의 意味을 五臟과 관련시켜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표 3).

五. 體質과 辨證論治를 關聯시키기 어려운 점

위에서 여러가지 辨證과 四象體質과의 關聯시키기 쉬운 것들을 조사하여 보았으나 실제로 兩者를 結合시켜 생각하기에는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특별한 寒、熱、虛、實의 徵候를 觀察하기 어려운 少陽人、太陰人의 消化障碍를 辨證論治의 觀點에서 六味地黄湯이나 太陰調胃湯에 가까운 處方으로 構成하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심스럽고, 陽明病의 大、小承氣湯證을 보고 少陰人의 八物君子湯이나 巴豆劑를 處方하는 경우, 太陰人의 泄瀉證에 관한 辨證 및 處方の 경우, 太陰人의 浮腫、肝受熱裏熱病의 熱多寒少湯證, 太陽人의 反胃證 등은 辨證論治의 觀點과 關聯시키기 어려운 것 들이다.

以上을 總括하여 보면 비록 臟腑의 生理、病理的인 思考는 다소 차이는 있으나, 상당부분을 結合하여 整理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四象體質醫學의인 觀點으로 보지 않으면 쉽게 辨證論治로 접근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에 관한 研究는 앞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겠다.

III. 結 論

既存의 여러 辨證體系와 四象體質辨證間의 相互關係 및 四象體質醫學에서의 臟腑概念을 現存醫學의 側面에서 觀察한 바 다

臟腑比較	四象臟腑	五行臟腑
臟腑	相異各體質	相同全人
分類概念	黨 焦	歸 類
分類基準	定位基準	機能單位
	肺	呼吸作用, 陽的特徵
	脾	脾之陽氣, 心火, 血肉之心
	肝	肝, 腸腹
	腎	腎之陰精, 司大小便

(표 3) 四象臟腑와 五行臟腑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陽氣 損傷을 중심으로 하는 傷寒病의 病理는 少陰人의 病理와 共通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陰液 損傷을 중심으로 하는 溫病의 病理는 少陽人의 病理와 共通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四象醫學에서의 肺는 五臟六腑에서의 肺의 呼氣作用과 主皮膚、在上部등의 陽的 側面을 意味한다.
4. 四象醫學에서의 脾는 五臟六腑에서의 心火와 脾의 陽氣 및 血肉之心을 包括한다.
5. 四象醫學에서의 肝은 五臟六腑에서의 肝陰血과 臍腹을 意味한다.
6. 四象醫學에서의 腎은 五臟六腑에서의

陰精과 司二陰하여 大小便을 排泄하는 作用을 意味한다.

7. 少陰人은 辨證의 觀點에서 陽虛陰盛, 心脾腎의 氣虛와 陽虛, 少陽人은 陰虛陽盛, 心胃腎의 陰虛, 心 및 命門火旺, 心腎不交와, 太陰人의 內燥外濕, 肝燥熱肺燥寒과 關聯시킬 수 있다.

8. 四象體質과 辨證을 結合시키는 研究는 매우 어려운 것이지만 民族醫學의 創造的 繼承을 위해 필요한 課業이라 믿어진다.

參考文獻

1. 文濬典, 安圭錫, 崔昇勳. 『東醫病理學』, 高文社, 1990, p.9, pp.239-244.

356-370.

2. 河北醫學院 校釋. 『靈樞經校釋(下冊)』. 人民衛生出版社, 1982, pp.286-297.
3.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出版, 1986.
4. 宋一炳. 「李濟馬 哲學의 學問的 背景과 四象醫學의 成立에 대한 考察」. 『四象醫學會誌』 Vol 3. No.1, 1991.
5. 尹吉榮. 『四象體質醫學論』. 한일문고, 1974, p.172, pp.183-306.
6. 池圭鎔, 崔昇勳, 安圭錫. 「辨證理論의 匯通과 疾病現象의 理解를 위한 研究」. 『慶熙韓醫大論文集』 13, 1990, p.277.
7. 浙江中醫學院 編譯. 『溫病條辨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1979, pp.28-184.